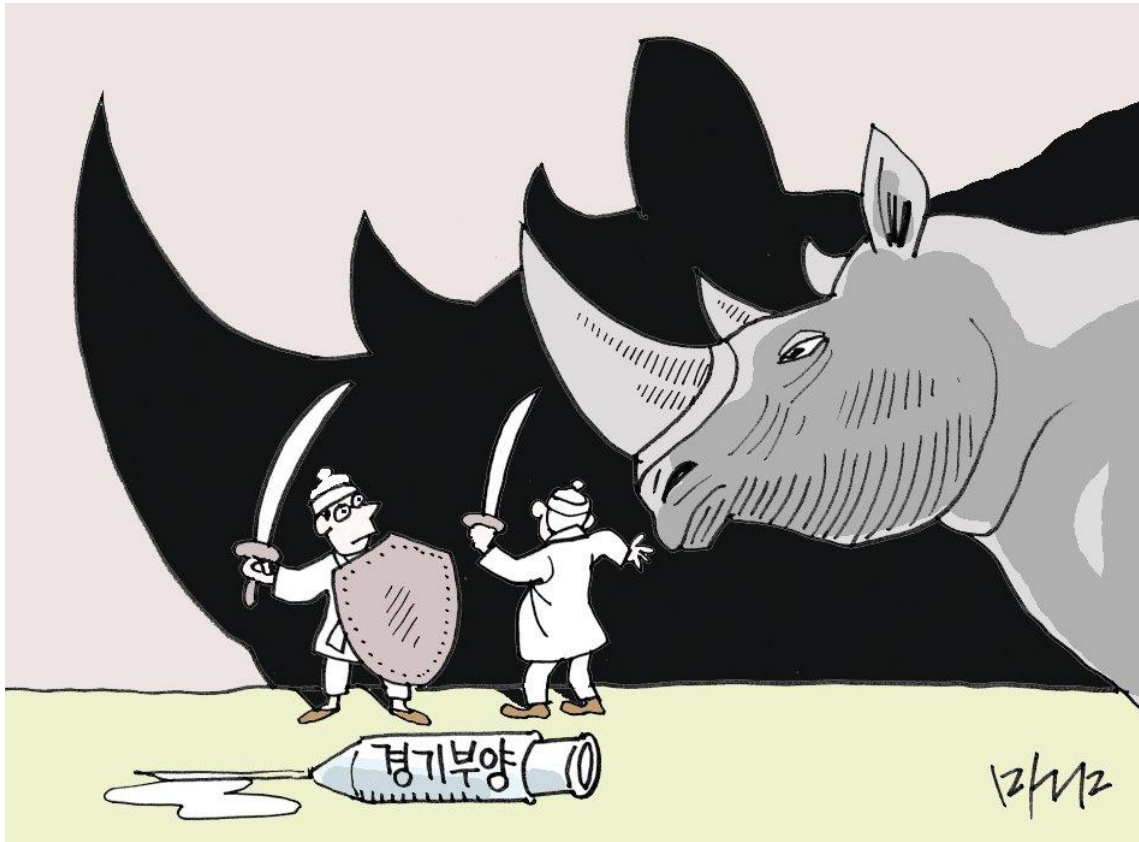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마주친 가장 큰 ‘회색코뿔소’는?



▲ /삽화=양만금 화백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44] 지난 3분기 1.4%에 달하는 깜짝 성장으로 금년도 3%의 실질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한 정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이 이미 3.1%로 남은 4분기 동안 뒷걸음치지만 않아도 3% 달성이 가시권에 들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수출호조세 덕분에 크지만, 대외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일구어낸 좋은 성적표는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듯합니다. 오늘 발표된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도 우리나라 예상 성장률은 3.2%와 3.0%로 2016년 2.8% 대비 올랐지만 같은 시기 세계 평균성장률이 3.1%에서 3.5%로 상향조정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OECD국가 대비 중위권을 밀도는 수준이고요. 결국 수시로 바뀌는 단기 성장률 변화에 일희일비 할 일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연간 성장률이라는 수량적 목표보다 성장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성장을 지향해야한다는 애깁니다.

지난달 서울을 다녀간 ‘회색코뿔소’(Grey Rhino)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색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종종 간과하는 위험’ 또는 ‘현실화가 불가피한데 사전대비 없이 닥치면 속수무책인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부커 대표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지요. 한국

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회색코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질문에 답은 ‘잠재성장률 추락’이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를 풀가동해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국가경제의 성장능력을 뜻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 수준에 달하던 국내 잠재성장률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3%로 내려앉았고요. 금년도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잠재성장률 2% 시대에 돌입했는데 오늘 IMF 분석도 3% 밑으로 떨어진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악화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조개혁을 통한 반전이 없으면 10년 후 1%대, 20년 후에는 심지어 0%대로 추락한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도 얼마 전 회색코뿔소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중국 경제의 최대 경계대상은 신용위기라는 뼈아픈 지적을 한적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역동성 위축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대표적 회색코뿔소라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기본체력 저하는 가장 원천적인 위험요인인데도 정치권이나 정부가 간과하는 이유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 부커 대표의 진단입니다.

긴 안목에서 성장 역량을 키워야한다는 정답은 이미 아는 애깁니다. 일관된 실행이 문제죠. 기업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이 회복되어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기술혁신 촉진이 수반되어야만 현 정부 성장전략도 실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한 영양제 의존은 곤란합니다. 자칫 체질개선이 아니라 체질악화를 초래해 오히려 기초체력을 떨어트리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규제환경 개선이 민간투자과 고용창출에 약효가 강한 촉진제라는 건 검증된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효과는 시차(時差)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국가경영은 단거리달리기보다 릴레이 자세가 국익과 미래세대에 더욱 바람직합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